

시론



강동완

조선대학교 명예교수·사생명종중지구촌연대 뇌건강치과학 시연구원 추진위원장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며 그러한 능력 때문에 언어와 문화 그리고 과학 등을 발전시켜 문명사회를 이뤄왔다. 그런데 인간이 '혼자' 생각하고 '혼자' 살아왔다면 과연 오늘날과 같은 문명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연결' 또는 '관계'라는 의미의 인간은 타인과 접촉하고 연결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인간의 행동을 좌우하는 진(眞)과 선(善) 그리고 미(美)를 추구하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되고 있다.

그중 미, 즉 아름다움이란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었다. 그중 남성과 여성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여성의 몸과 정신에 가해진 낡은 정체성 즉 타인에게 강요되거나 세뇌당한 수직적 관계의 신체를 깨뜨리고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작가가 있다.

최근 필자는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을 방문하면서 프랑스 출신으로 신체 미술의 대가인 오르랑(Orlan)을 만나게 됐다. 1947년생인 그녀는 예술의 지평을 인류의 역사와 전 지구적 문화 그리고 인간을 넘어 동·식물생태계 그리고 생명 창조체의 근원으로 넓혀가고 있다.

전시 중인 작품을 보면서 그녀의 책에서 1976년 '예술가의 키스'라는 행위예술을 선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검은색 옷 위에 사

신개념 뇌건강 치과학(VIII)

- 오르랑과 클림트의 입맞춤이 전하는 희망의 미학

실적으로 유방을 묘사한 갑옷 형태의 부착물을 걸친 오르랑은 행인들로 하여금 목 부분에 난 통로로 5프랑짜리 동전을 집어넣게 해 동전이 성기 부분에 닿으면 그 사람과 키스하는 과격적인 작품이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러한 사랑을 아름답게 또는 황홀하게 표현하기 위해 시인은 시를 쓰고, 음악가는 작곡하고, 미술가는 그림을 그렸다. 사랑을 표현한 유명한 작품 중의 하나는 건축가 폰 헬데브란트(1668-1745)가 설계한 바로크 양식의 벨베데레 궁전의 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는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의 The Kiss이다.

한 남성이 두 손으로 여성의 얼굴을 강하게 잡고 입을 맞추고 있다.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듯 하늘에서 금비가 내리는 듯 반짝이는 모습은 성스럽기까지 하다. 두 사람의 황홀한 입맞춤 속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긴장과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다.

오르랑과 클림트의 입맞춤은 무엇이 다른가? 의미가 다르지 않다. 오르랑은 성을 상품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신체를 작업의 대상으로 삼고 몸 위에서 작업하면서 화폭이라는 고정화된 관념을 깨뜨리고 개인적인 것이 사회적인 수평적 자유로움을 꿈꿨다. 클림트 또한 황홀한 사랑이 가장 순수한 것이고 입맞춤은 생명의 시작이고 인간의 아름다움은 사랑이라는 순수한 감성적 존재임을 깨우고 있다.

인간이 사랑을 표현하는 입맞춤은 엄마가 아이에게,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행복한 아름다운 감성의 표현이다. 호감의 단계를 넘어 입맞춤의 순간 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인생이란 선택하며 살며 선택의 판단 기준

은 삶에 가장 큰 보상을 주는 쪽이다. 사랑에 빠진 뇌는 이성보다 본능적인 보상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타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입맞춤하고 사랑에 빠지면 뇌의 복측피개부위(Ventral Tegmental Area)에서 만들어진 도파민이 뇌 깊은 곳에 존재하는 미상핵(Caudate Nucleus)으로 분비되고 사랑의 활성화 강도에 따라 전전두피질에도 분비되는 도파민 쾌감(보상) 회로시스템이 작동하게 된다. 그리고 해마(Hippocampus)에 기본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을 긍정적으로 축적하게 된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미래를 만들어 간다. 이 과정에서 도파민의 작용은 중요하다. 그러나 도파민 중독은 위험하다. 인터넷, 게임 및 도박, 편협한 이념 등에 중독되는 경우 도파민이 필요 이상 분비되면 환각이나 편집증을 보이고, 반복적 충동 행동(강박 신경장애)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는 도파민 중독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이 샘솟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부흥이라는 제1의 한강의 기적,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제2의 한강의 기적, 노벨문학상이라는 제3의 한강의 기적을 지시하여 새로운 희망이라는 시대정신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러한 희망을 열망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분노를 통한 분열과 갈등보다는 세상과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맞춤하자는 바람을 가져본다. 가정과 타인의 존재에 감사하고, 평화와 조화의 가치에 감사하게 될 때 사랑의 도파민은 뇌의 해마에 행복과 미소의 기억을 저장하게 될 것이다.

社說

사실로 드러난 무안군 부실행정 솜방망이 처벌 안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무안군 건축과, 농업정책과, 지역개발과, 일로읍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농지법, 국토계획법, 환경법 위반 등 관리 소홀·부처 관련 총 7건의 위반·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본보가 집중 보도한 남악 신도시 오로2지구 인근에서 이뤄진 대규모 '빨흠 불발 성토' 묵인·방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무안군은 지난해 3월 초 현장 점검을 거쳐 망월리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38필지(총 면적 88ha)에서 농작물 재배 및 토지 개량에 부적합한 성토를 확인했다. 심지어 현장 점검을 통해 철근·쓰레기 등 폐기물이 포함됐다는 제보에도 불구하고 외관 상 안 보인다라는 이유로 굴삭하거나 토지오염 분석 의뢰 등 절차를 무시했다. 현행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2m 이상 성토 토지도 고발 등 처분 역시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행정행위 또한 부적절했다. 무안군은 33필지에 대해 토지주들이 반발하자 최종 원상회복 명령에서는 빨흠 위에 양질의 흙을 적도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나머지 5필지는 우량 농

지 조성 사업 개발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단속 조치를 거쳐 준공 승인해줬다. 무안군은 이 가운데 17필지는 공익직불금 대상으로 삼았다. 무엇보다 26필지가 6년 사이 매매·분할이 이뤄졌고 인근 농지에 농가주택도 잇따라 건축됨으로써 영산강도로 개설 등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 목적성도 부상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무수한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흡사 모른 체 했다. 총체적 부실로 규정된 것이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최소 2명 이상의 징계를 포함해 12명에 대한 문책을 무안군에 요청했다. 주무부서 3곳에는 주의 처분도 내려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는 문제다. 엄중한 사안에 비춰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본지는 수차례 심층 보도를 통해 공식사회의 부정, 비리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행정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결코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돼선 안 될 것이다.

글로벌 터빈사 전남 해상풍력 투자 의지 확인은 다행

목포신항 부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해상풍력 터빈 제조사인 베스타스의 회장이 생산공장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다. 헨릭 앤더슨 회장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도청에서 만나 2년 내 착공하기로 하고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두 사람은 물동량 확보를 위해 신안 집적화단지 조기 지정과 함께 프로젝트가 적기 추진되도록 정부 정책 건의 등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최고 결정권자의 행보에 따라 일단 불씨는 살린 셈이다.

전남도와 베스타스는 지난 4월 업무협약을 하고 머스크와 공동으로 3천억원을 투자해 목포신항 항만 배후단지에서 터빈 생산 가능시설 건립을 약속했다. 그러나 입찰에 불참한 이유가 그랬듯 글로벌 시장 침체로 물동량 확보가 어려워지고 고금리에 따른 투자 역시 위축된 현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앤더슨회장은 협력 파트너로서 변함이 없다면 물동량이 확보되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남도가 공을 넘겨받은 모양새로 비춰진다. 해상풍력 터빈 공장은 2만㎡(6만평)에 연 최대

150대 생산 규모로 추진됐다. 2027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머스크사는 신규 물동량 창출 등을 통해 목포신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글로벌 1위 터빈사인 베스타스와 세계적인 통합 물류기업인 머스크의 공동 투자에 대한 도민들의 바람이 크다. 전남도의 기대에 맞춰 우려로 끝나길 바라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게 보인다. 해상풍력발전기 핵심부품인 터빈 공장의 전남 유지는 배어링, 변압기 등 부품업체와 타워, 하부구조, 케이블 등 협력업체의 집적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아·태지역 해상풍력 수출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김지사와 앤더슨 베스타스 회장 간 논의의 전제로 조속한 착공을 위한 제반 여건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전남도는 세계시장 위기 속에서도 해상풍력 보급 확산에 주력할 방침으로 우선 실효성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베스타스의 터빈 공장이 계획대로 들어설 것인지 주목된다.

자치칼럼



이용연

마을자치연구소 대표·광주마을학교 교장

짧은 가을이 기울어 가는 10월과 11월, 마을은 주민총회와 마을축제로 떠들썩한 잔치를 벌이고 있다. 지난 1년간 추진했던 마을의제와 사업들을 결산하고 내년도 계획과 의제들을 확정하는 주민총회가 광주 96개 동에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의 재능과 장기를 펼쳐 보이고 나눔과 화합을 다지는 마을축제도 함께 열려 모처럼 마을에 따뜻한 활기가 가득하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의 출발과 함께 강화된 마을의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주민자치회 이전에는 마을의 주요 사업과 계획은 동장과 동네 유지 몇몇이 결정하고 집행할 뿐이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의 출범과 함께 동 주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기는 마을공동체의 공론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마을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속의 민주주의를 경험한다. 위르겐 하버마스가 말하는 '민주적

진화하는 주민총회와 마을축제

공동체의 존립을 보호하는 공론장'이 마을에서 진화하고 있다. 마치 전통 마을에서 초하드렛날 마을총회를 열어 동네일을 결정하고 머슴날 축제의 하루를 즐겼듯이, 주민총회가 아파트 숲속에서 주민자치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다.

서구 풍암동에서는 올 3월부터 주민총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의제학교를 운영해 마을의제를 발굴, 선정한 후 실행계획까지 미리 준비했다. 그리고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신암공원 등을 찾아가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신암초교 등 어린이 600명을 대상으로 학교총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청소년 의제를 발굴했다. 그리고 마을미디어와 아파트연합회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QR코드 사전투표를 실시했다. 총회 당일에는 프로그램 이용권을 배부해 참여를 독려하기도 해 전체 주민 3만4천명 중 6%(2천100여명)가 참여해 '테마가 있는 공원', '담배 냄새 없는 거리', '마을 힐링캠프' 등 6개의 마을의제를 결정했다. 북구 운암2동에서는 주민총회장에서 텃밭 플라마켓, 업사이클 화분 전시, 위기가정 발굴 캠페인을 동시에 열고, 학생들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등 10개 마을의제를 결정했다. 남구에서도 송암동의 굴다리음악회, 사직동의 광주공원 맨발걷기, 전통우물 통샘 포토존, 양림동의 주민 연극단 운영을 의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특히 화정2동에

서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의제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동아리 활동 및 축제 추진'에 따라 청소년 동아리와 함께 마을축제를 열어 청소년과 학부모 주민 3천여명의 열광적 환영을 받았다. 마을의제도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조성, 청소년 진로 탐색프로그램 운영, 세대 공감 배움의 장 마련 등 여러 세대가 함께 하는 의제를 폭넓게 선정했다.

이러한 주민총회와 마을축제의 진화는 그동안 쌓아온 주민자치의 역량과 경험들이 마을 일을 한자리에서 즐겁게 논의하게 해 주민참여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주민총회추진위원회와 마을의제학교를 미리 운영하거나, 공원이나 학교를 찾아가고, 옹호 장소를 여러 곳으로 분산해 참여를 유도한 점도 성공적이었다. 아울러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천가능한 의제들이 주민총회로 결정됐다는 점도 달라진 모습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몇몇 동에서는 주민총회답게 주민참여율이 10%에 가깝게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마을자치의 가능성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하다. 물론 마을의제와 예산의 연계,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 자주적 운영 확대 등 여러 난제가 남아 있지만, 올해의 경험을 성찰 확산해 주민자치의 꽃으로 차분하게 가꾸어 가길 기대한다.

독자투고

얼마 전 데스크에서 청소년이 도박으로 수억 원을 날렸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편화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이버 도박 사이트는 자극적이고 흥미를 유발하는 문구와 눈에 띄는 색감의 배너들, SNS상에 광고 등으로 사이트를 노출시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사이트에 접속하게 유혹한다.

사이버 도박 사이트는 가입 시 성인인증 등 나이 제한이 없으며, 핸드폰 번호만 알

청소년 '사이버 도박' 심각한 사회문제 대두

으면 누구나 손쉽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도박할 수 있어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다.

청소년들은 사이버 도박을 단순 게임으로 생각하고 처음에는 소액의 돈을 베팅해 재미로 게임을 하지만 점점 도박에 중독되고 베팅 금액도 커진다.

이에 따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심부름만 하면 돈을 준다는 말에 속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하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해 사기를 치고 친구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등 학교폭력, 절도 등을 하는 등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도박에 중독되면 성인들도 빠져나오기 매우 힘든 만큼 청소년들이 도박에 인생을 베팅해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복·평양경찰서 경무과)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물어는 詩

구멍이 많은 구두

이숙경



세상 떠난 주인이 순수 지은 가족진  
진열장 맨 끝에서 반값으로 짚어주는  
철 지난 구두 한켠에 풀죽은 채 남았다

역자 속 정물같이 살아온 사십여 년  
눈에 띄면 아니 될 몇몇은 숨구멍처럼  
발등 위 구멍 밖으로 살길 내고 싶었겠다

케케묵은 발대신 발품 팔기 잘한 날  
두 손 모아 쓰다듬고 바라보는 신발코  
밀창 위 당당한 콧대 다 닳도록 우뚝하다

(시조집 '가장자리 물어세', 작가, 2024)

[시의 눈]

집 앞 내거리에 교통신호 계기가 있는데요. 거기 기대인 작은 합판 건물인엔 구두 고치는 할아버지가 있었지요. 나도 몇 번 굽을 갈았네요. 옆 꽃가게 아주머니에 의하면 그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네요. 난 주안 없는 합판집 틀을 들여다봅니다. 공들여 수선한 한 켠에 손이 풀죽은 채 누는 미상 옆에 놓여 있었네요. 낡은 선풍기 아래 무두질과 갈질, 그리고 향지질을 섞어 만든 그 상처투성이의 손이 떠오릅니다. 그가 쓰다듬던 구두로부터 일으키는 희미한 미소가 갈취처럼 꽃피는 가을입니다. 브라이언 스미스의 '부자와 구두장이'에는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던 신기료가 부자로부터 고향을 받고서 불행해지는 이야기가 있지요. 언젠가 너 거름을 털으며 주려했지만 한사코 거절하던 그를 기억합니다. 그로부터 나, 행복이란 그냥 오는 게 아님을 배웠지요. 현대, 요즘은 주변에 구두방이 보이지 않아요. 문득 사람들 발을 봅니다. 허어, 나처럼 다 운동화를 신고 있네요. 편의주의는 가난한 굽과 구멍을 싫어하나 봐요. 이숙경 시인은 전북 익산에서 나 전주교대를 졸업, 교직에 근무하며, 2002년 매일신문 신춘문예 등단한 이후 시조집 '피두'(2009), '까막떡따구리'(2020)를 펴냈습니다. 그는 사물의 외관에 나타난 현대인의 단절된 삶에 자기의 삶을 대입해 그걸 세밀화로 내밀어 그려내는 시인입니다.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가)10(가)·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